

“자식같이 키운 배추 갈아엎는 심정 아나”

배추 산지폐기
비통한 농민들

해남서만 2만평...“정부 지원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쳐”

“甥별에서 자식같이 키운 배추를 내 손으로 갈아엎는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16일 해남군 산이면 신흥리 김길선(56)씨 배추밭.

8250㎡(2500여평)의 배추밭을 갈아엎은 김씨는 “분격적인 김장배추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가격이 너무 내려가 폐기처분했다”며 “정부에서 산지폐기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생산원가에도 못 미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과잉생산된 김장배추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전남도가 산지폐기에 나섰다.

전남도는 배추 도매가격이 포기당

1000원선 이하로 급락함에 따라 배추값 안정을 위해 16일부터 배추 주산지인 해남과 나주, 영암 등지에서 산지폐기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협력 계약재배 물량 중 전국적으로 ▲가을배추 310㏊ ▲가을무 72㏊가 산지폐기된다. 이 가운데 도내 산지폐기 물량은 ▲가을배추 45.3㏊ ▲가을무 27.7㏊이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의 경우 배추 폐기면적은 17.2㏊로 도내의 38%를 차지한다. 이날 산이면 4 농가에서 2만여평의 배추가 폐기됐다.

해남지역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 배추과동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인해 전년 1364㏊에서 올해 2030㏊

로 48% 증가했다.

배추 산지폐기는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기상여건도 좋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배추값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배추 수급안정대책 일환으로 포기당 800원 아래로 가격이 하락하면 3만t 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산지 폐기물량에 대해서는 가을무에는 10㏊당 58만8000원이, 가을배추에는 60㏊당 8000원이 정부기금에서 지원된다.

전남도는 배추값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증가가 시급하다고 보고 김치

가공업체의 배추, 무 원료 매입자금과 저장시설 임대자금을 농어촌진흥

기금에서 무이자로 응자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분격적인 김장철에는 양념류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배추가격 안정과 함께 김장을 더 빨리, 더 많이 담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출하하는 겨울배추의 경우 전남지역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7%(722㏊) 감소하고, 전국적으로도 15% 정도 감소해 배추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도 예상된다.

/송기동·김지율기자 song@/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강운태 시장 “금품수수 공무원 원아웃 퇴출”

광주시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
직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극악처방을
내놨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6일, 최근 공
무원들의 잇따른 비리행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곧바로 해임
또는 파면하는 원아웃 퇴출제도를 시
행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다
수 공직자는 맡은 직무를 묵묵히 수행
하며 헌신, 봉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극소수 공무원의 부도덕한 행태로 인
해 공무원 조직 전체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앞으로 금품수수 사건
이 발생하면 저위고를 막론하고 원
아웃(One-out)제에 의해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공무원의 각종 비
위뿐 아니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도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상급자에게
도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조문은 감사관에게
“외부로부터 비리가 적발되기 전에 자
체 감찰 활동을 강화해 청렴도를 높이
하고, 썩은 삶은 반드시 도려내도록 하라”
고 지시했다. /총행기자 redplane@



신안군수협 송도위판장에서 새우젓 위판이 한창이다. 한때 퇴출위기에 처했던 신안군수협이 새우젓 덕분에 설립 46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14일 위판액 1000억원을 넘어섰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나주故이행순 선생 건국훈장 애국장

고통 이상문 건국포장·해남故윤이신 대통령표창



혜정역 15년
형을 받은 뒤
1924년 37세
의 나이로 사
망했다. 이상
문 선생은
1944년 12월

인도네시아 자
바에서 연합군 포로 감시요원인
일본군 속으로 근무하던 중 고
려독립청년당을 결성, 1945년 3
월 탈출해 연합군과 함께 항일투
쟁을 하려다 체포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서울메트로, 서울도
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등 7개 도시철
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지하철

고 윤이신 선생은 1944년 2월
해남에서 대동아 전쟁과 관련
조선 독립을 언급하는 시국답을
주변에 알리다 체포,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제72회 순국선열의 날 기
념식은 17일 오전 10시 강운태 광
주시장,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여
고 대강당에서 열린다.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육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 2012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의 경우 학력
신장 지원,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교육활동 지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돼 효율적인 예산

반면, 세계적인 명품 길을 육성하
겠다며 추진했던 남도 깃길 조성사업

예산은 2년째 누락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폐기돼 아쉬움을 남겼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교育 복지에 대한 크게 늘려 각각 1조
5121억원, 2조7180억원 규모의